

격려사

후학 종도는 물론 모든 중생을 위해 헌신하신 경허선사의 덕화를 소중히 예경하며, 경허연구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선사의 행장을 문화예술로 승화하고자, 이렇게 현대인의 시선에 맞추어 친숙하게 전달하는 여러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님께서서는 근현대사를 지나는 단단한 교각으로 자리하셨기에 후손은 이에 기대어 현재의 정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경허연구소를 통해 선사의 수행의미와 구도열정을 후학들에게 되새기게 하는 일은 매우 뜻 깊은 선양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스님의 모습은 신명을 바쳐 수행정진하신 숭고한 기운을 전해주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생한 여운으로 남아 생명이 넘치는 봄소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도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스님의 구도열정을 체험하는 감동의 자리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듯 선사의 위대한 사상을 조명하는 전문 학술연구와 편찬사업, 그리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맞게 전파하려는 노력은, 선사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소중한 마음가짐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후학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른 길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성취를 사회와 일반대중에게 유익함으로 나누겠다는 노력은 현시대에 종교가 갖는 책무를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공경과 성심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은 비단 선조의 뜻을 기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후손에게도 상당한 모범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등장하는 선사께서는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의 주인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을 밝혀가는 등불이자 후손의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스님의 참모습을 조명하여 따르고, 또 모두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어 가는 매우 중요한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선조의 수승함을 올바르게 전하고 현사회에 함께하겠다는 방장 설정대종사의 지혜의 덕화에 깊은 공경을 드리며, 주지 정묵스님을 비롯한 소임자와 사부대중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경허스님의 마음 깊은 열정까지도 표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진력을 다해 주신 극단 관계자 여러분의 정진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의 소중한 정성이 큰 성취를 이루고 사부대중은 물론 현대인의 삶에 맑고 밝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060(2016)년 4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